

# 승가교육 개선 위해 종단 역량 결집

##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발족... "미래 비전 제시"

‘승가교육’ 개선을 위한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발족했다.

조계종 총무원(위원장 자승)은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발족식을 병행했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승가교육진흥사업과 승가교육 기금 운용, 승가교육기관 설립 지원, 승가교육 교역자 지원, 장학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종정 법전 스님의 “도제양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신년교시 이후 제33대 총무원 집행부가 승가교육개선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발족이 시작됐다. 이어 1월 28일 총무원회에서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령’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근거까지 갖췄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부위원장 교육원장 현승 스님이 맡았다. 종단 수장인 자승 스님이 승가교육진흥을 위한 과정을 총지휘하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 등은 주무기관인 교육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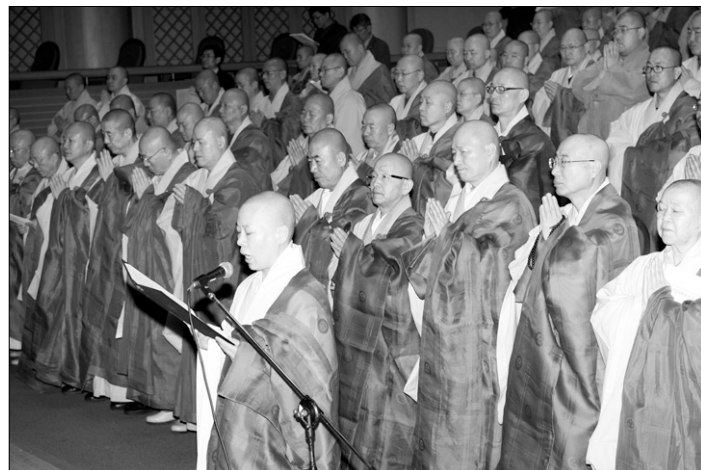
담당한다.

총무원과 교육원의 유기적인 협의를 위해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실장 원담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정묵 스님, 교육원 교육위원장 법안 스님을 임명했다.

또, 선분사 주지 항적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봉선사 주지 명진 스님, 중앙종회의원 학담 스님,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교육위원), 중앙종회의원 윤달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분각 스님(교시위원) 등을 위촉직 위원에 위촉해 기금 조성과 정책 수립 및 제정 관련 자문 및 지원 등을 도모했다.

하지만 일선 강원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는 일부 강원 통합 등을 언급한 교육원장 현승 스님 체제에 대한 일선 강원인의 반감이 적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케 한다.

행사에서 종정스님은 믿음 스님(원로회의 부의장)이 대독한 교시에서 “불법의 흥망성쇠는 도제불사의 공력에 좌우된다”며 “교육은 불교



3월 10일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승가교육 진흥을 발원하고 있다.

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작불사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교육불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불교의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가장 큰 기초공사”라며 “이 발족식으로 종단의 인재불사가 한층 더 도약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축사에서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발족하는

오늘은 승가교육에 대한 종도의 여망을 다시한번 발원하는 자리이다. 사부대중의 의지가 한결같은 교육불사의 원력으로 이어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500여 사부대중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낭독한 발원문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바르게 구현하는 승가교육을 위해 신심과 원력을 다하겠다”고 발원했다.

행사에서는 종정 스님이 금일불

을 전한 것을 비롯해 원로의원 천운 스님 1000만원,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500만원, 전국비구니회화명성 스님 500만원, 생령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1000만원,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 각 2000만원,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 1000만원,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500만원,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이 5000만원의 승가교육진흥기금을 전달했다.

또, 해남 미항사 금강 스님은 최근 출간한 <평갈 마을 아름다운 우리절>을 비롯해 이후 출간되는 저서의 인세를 승가교육진흥기금으로 약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예비비 1억원과 교육불사특별기금 2억원 등 4억 6000만원을 승가교육진흥기금으로 출원했다.

현승 스님은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승가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사부대중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신촌 봉원사 소유권 확정

## 10일 협약식, 선암사 해결로 이어질지 관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서명 후 합의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서울 신촌 봉원사를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간의 분규를 종식하는 합의서 서명식이 3월 10일 병행됐다.

협약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봉원사 특위위원장 성직 스님과 일운 스님, 봉원사 주지 법안 스님과 일운 스님 등 양종단 주요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인사말과 협약서 서명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조계종은 1962년 12월 14일 등록 이후 64년 자운 스님을 초임주지로 16명의 주지 스님들이 부임했다. 하지만 한차례도 취임식을 가진 바 없어 안타까웠

다. 그동안 애써준 많은 스님들에게 감사사를 표하며 이러한 화합의 정신으로 더욱 불교종흥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조계종과 태고종이 한마음을 냈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그동안 마무리 되지 못한 사항들의 불교법안 상치가 치유되는데 마음을 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태고종 태고총림이자 조계종 제20교구본사인 순천 선암사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원기자

# 한마음선원 아이티 구호기금 손길



한마음선원은 3월 11일 아름다운동행에 아이티 구호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마음선원 재무 해수 스님.

불교계 기부재단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전달된 아이티구호기금이 10억원을 넘어섰다.

한마음선원(선원장 대행)이 3월 12일 3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조계사(주지 세민)이 2차 아이티기금으로 2045만 1734원을 기부했다. 또, 재단법인 선학원(이사

장 법진)이 3267만 6860원, 오산화성사암연합회가 500만원, 제주 관음사(주지 원종)가 5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한편, 신륵사(주지 세영)는 11일 아름다운동행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사업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상연 기자

# 월운 스님, 東大 명예역경원장 위촉

2008년 12월 동국대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됐던 역경보살 월운 스님(前 동국대 역경원장, 봉선사 주지)이 명예역경원장에 위촉됐다.

동국대 이사장 정권 스님은 3월 3일 봉선사 다경실에서 월운 스님을 예방해 ‘동국대역경원장 명예원장’ 위촉패를 전달하고, 후임 역경원장 인선에 대해 논의했다.

정권 스님은 “한국불교 역경사업에 국보적인 존재이며 ‘역경보살’인 월운 스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며 동국대의 일방해임으로 역경원장 퇴임직조차 제대로 봉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스님은 “(뒤늦게나마) 동국대가 스님을 동국대역경원 명예원장에 추대했다. 평생 역경사업에 헌신하셨지만 남은 생도 명예역경원장으로 동국대역경원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월운 스님은 “이사장 스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라며 “후임 역경원장 취임에 즈음해 동국대역경원회의 기금 1억5000만원을 동국대에 지정기부(역경봉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스님은 후임 역경원장으로 무비 스님을 추천했다.

한편, 동국대 관계자는 “신임 역경원장 취임식에 월운 스님을 모시고 이·취임식을 겸한 스님의 퇴임식을 여법하게 거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특정 후보 단일화 선언 논란

## 동화사 원로스님들, 주지후보 법광 스님 추대

4월 예정된 대구 동화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제9교구 내 원로스님들이 특정 후보 단일화를 선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등 원로급 스님 10여 명은 3월 10일 대구 서봉사에서 ‘조계종 제9교구 원로 및 중진모임’을 개최하고, 유시문을 통해 파계사 주지 법광 스님을 동화사 주지 후보로 추대했다.

파계사 조실 도원 스님, 감현사 무공 스님, 前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보광선원 조실 화산 스님, 관음사 원명 스님, 서봉사 경회 스님 등 원로스님들은 “경인년 동화사 주지선거에 즈음하여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시문에서 “동화사 주지선거에 대응적 차원에서 단일후보로 법광 스님을 지명·의결한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조계종은 19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실시된 선거로 인한 병리와 폐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제9교구는 3번의 주지선거에서 대구교구보다 폐해가 심해 지역승단은 크게 분열돼 있고 선거후유증도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로스님들은 “현행 선거제 도하에서 4월 주지선거가 치러질 경우 예견되는 비불교적·반승가적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화합승단과 정경교구를 위해 동화사 새 주지를 경선 없이 산중교유방식으로 추대하길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화사는 이미 현 주지 하운 스님이 출마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해 몇몇 스님들도 주지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 사찰음식현황

## 조사 보고서 발간

사찰음식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가 최초로 발간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효탄)는 3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과 마음이 맑아지는 사찰음식 순례-대전·충청편> 발간을 발표했다.

책은 전국사찰을 대상으로 사찰음식현황조사를 실시중인 문화부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조사는 대전·충청지역 조계종 223 곳의 사찰과, 440개 타종단 소속 사찰에 대한 전화, 인터뷰, 설문조사,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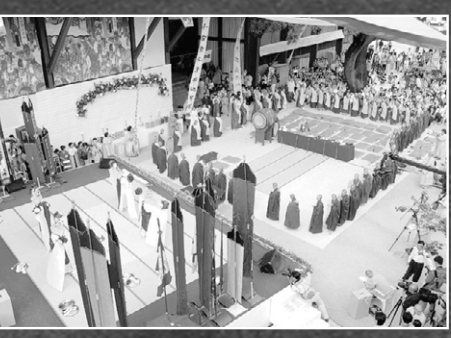
책에는 137종의 사찰음식들이 선별돼 게재됐다.

또한 각 음식에 대한 명칭, 재료 및 분량, 조리방법 등 과 함께 간략한 사찰 정보도 수록됐다.

이은정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魚丈)스님 전통의식 강의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魚丈)스님께서는 불교 전통의식의 보존, 계승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하여 전문의식인 상주권공, 각배, 영산 과정을 마친 스님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전 재 의식을 중심으로 월 2회 직강을 해 주십니다. 뜻있는 스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강의내용 : 수록재, 예수재, 영산재, 49재, 점안의식 등
- \* 강의일시 :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 - 첫강의 : 2010년 3월 29일 (월)
- \* 강의장소 : 서울시 강서구 가양 1동 226 흥원사
- \* 모집인원 : 00명
- \* 연락처 : (02)2658-3100, 010-3840-0624 (홈페이지 www.hongwonsa.org)

#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의식 보존 연구원

# 대한불교일월종 창종 7주년 기념법회 및 총무원 만국사 미륵 산신 조성봉안 임원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교는 믿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참된 이치를 깨닫는 것에 본질에 있다. 부처님은 열반 시 自燈明 法燈明 이라고 하며 자신에 의지해서 살도록 강조했다. 이에 불문에 든 스님을 비롯한 불제자들은 한편으로는 구도의 자세를 견지하며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교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다. 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근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傳法度生の 자세가 견지 되어야 한다.

부처님도 成道 후 40여 년간 호의호식을 버리고 누더기 옷을 입은 채 길에서 風餐露宿 하며 중생들의 無明을 구하는 데 전생을 버치었다. 부처님은 포교 길에 나서는데 물이 가지 말고 한 사람씩 다녀라 할 정도로 시간과 공간을 절약 하도록 요구 하였다. 이제 세상은 세기가 바뀌어 21세기가 되었다. 부처님도 성도하신지 3000년이 넘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戰爭과 暴力 憎恨이 판치고 있으며 사람은 다 평등하여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의 현실화는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이에 우리 불자는 乾坤一擲 百尺竿頭에 놓인 세계의 위기를 구하고 사람의 마음에 자비와 명상 그리고 포교의 정신을 심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이다.

본종 大韓佛敎 日月宗은 세계의 지구촌화에 발맞추어 불교의 근본이념과 사상을 세계인과 공유하는데 그 창립의 뜻이니 이로써 발기의 표로 삼는 바이다. 大韓佛敎 日月宗은 일치단결하여 불국정토를 실현하고 자비사상을 일상 생활화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정 관음사 석일하 대중사	
총무원장 만국사 주지 대원	교육원장 금성원 주지 영자
총무원장 천용사 주지 범우	호법원장 불심사 주지 도담
포교원장 대운사 주지 현봉	사회국장 미륵사 주지 대성
문화국장 낙양사 주지 초현	호법부장 해민사 주지 해도
포교부장 수월사 주지 만해	재무부장 약명사 주지 무오

\* 대승불교 사상의 전법포교 활동에 참여하여 뜻을 같이할 사암등락과 포교원을 개원할 스님은 총무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 대한불교 일월종

☎ 총무원 : 경북 영덕군 달산면 용평리 268번지 만국사 ☎ 054/733-2259 / 010-9504-7259